산속하고 친절한 은행
동양저축은행
Tel.(062)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7588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6년 10월 30일 (음력 9월 9일) 월요일

농업박람회 5년새 600배 성장

판매액 5천만원→310억원…대한민국 대표 농업축제로

관람객 32,000→650,000명
농촌·농업 산교육장 역할

제5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 참가한 관객들이 우리나라 최대 농업이벤트로 확고하게 자리잡은 행사에 출품된 지역 특산 우수 농산물을 둘러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올해로 다섯 번 째 열린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생산자와 소비자, 미래 세대인 어린이를 하나로 묶고, 국제무대에 우리 농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최대 농업이벤트로 확고한 자리를 잡았다.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나주시 산포면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류인섭)에서 계속된 제5회 대한민국농업박람회(이하 박람회)는 직거래장터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고리를 이어주고, 어린이에게는 농촌과 농업을 올바로 알게해주는 훌륭한 산교육장이 됐다.

특히 농업박람회가 해를 거듭하면서 우리 농업의 우수성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미래 세대를 농업의 세계로 안내하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농촌·농업 관련 이벤트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29일 '친환경 생명농업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 행사기간 동안 65만여 명이 행사장을 찾았고 70억 원의 수출계약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또 대형 유통업체 약정판매 165억 원을 비롯 총 241억 원대의 직접소득 창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불과 5년 전인 1회 대회 때의 관람객 3만2천명, 농산물 판매액 5천100만원과 비교해 보면 급성장 추세를 알수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된 전남도내 21개 시·군 농특산물 600종 7만 5천 점이 출품돼 한국농업을 대표하는 농도 전남의 위상을 제대로 보여 주었다.

박람회에서는 우수농특산물 전시관매관을 비롯해 생명예술관, 수출농특산물관, 어메이징관 등 11개 주전시장과 7개 부대 전시관이 설치돼 다양한 지역 농특산물이 전시·판매됐다. 또 박람회를 찾은 관객들이 와인 만들기, 쌀을 이용한 음식 만들기 등에 참여해 농민들의 수고를 이해하고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눠 축제분위기도 물씬했다.

여기에다 노랗고 파란 누에고치와 길이가 2m가 넘는 '뱀오이' 등 크기나 모양, 색깔이 별나고 희한한 농산물이 등장하고 어린이 고구마 캐기 등 체험 행사가 곁들여져 미래 소비자 세대들의 농업에 대한 관심을 크게 높여 주었다.

또 이번 박람회에는 경남 진주 친환경농업 농업인 35명이 단체로 참관하는 등 앞선 농업기술을 벤치마킹하려는 국내 농업인이 대거 방문한 것은 물론 중국과 일본, 미국 등 7개국에서 14명이 바이어가 참석하는 등 국내외 농업인과 농업 관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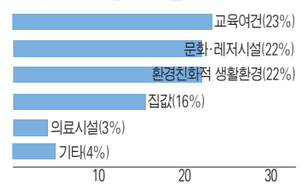
농업박람회는 당초 '남도 농업박람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됐다가 3회 때는 전국대회로, 4회 대회 때인 2005년부터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로 명칭을 바꿨다. /송기동기자 song@

"가족과 함께 이주" 27%뿐

50% "결정 못해"…이주 여부 교육·문화 여건 따라 결정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설문

■ 이주시 가장 고려할 부분



나주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할 한전 등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절반 이상이 아직 가족과의 이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가족과의 이주시 고려할 여건으로 교육 여건과 친환경적 쾌적한 생활조건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70%가량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절반 이상이 이전지역인 나주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광주일보사가 광주시가 마련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지역 탐방행사(24일~25일)'에 참가한 한국전력·한전기공·한국전력거래소 등 3개 공공기관 임·직원 96명(응답자 8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뒤 '가족들과 함께 이사하겠다'고 응답한 임·직원은 27%(23명)로 '혼자만 이주하겠다'고 응답한 비율 23%(20명)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가족과의 이주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무려 50%(43명)에 달해 향후 이주 직원들의 정착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유인책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이전 후 선택할 희망 주거지에 대해서는 나주 공공혁신도시 내에 정착하겠다는 응답자는 52%(45명)나 됐으며, 광주 35%(30명), 나주 7%(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가족들과 이주시 고려할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교육여건(27%, 23명) ▲환경친화적 생활환경(26%, 22명), 문화·레저·편의시설(26%, 22명) ▲부동산가격(16%·14명) ▲의료시설(3%·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국가의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67%(58명)가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변했으며, '잘못된 것으로 본다'는 부정적인 답변은 19%(16명)에 그쳤다. '그저 그렇다'는 11명이었다.

한편 지난 5월 대한지리학회가 실시한 나주 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17개 기관) 의식조사에서는 나주 혁신도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63.4%)이 긍정적 의견(26.6%) 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北, 5·31지방선거 개입 지령"

공안당국 '일심회' 수사

북한이 '고정간첩' 장민호(미국명 마이클 장·44)씨와 그가 조직한 '일심회' 조직원들을 통해 함경북도 핵실험 이후 남한내 각계 동향 정보를 수집하고 5·31지방선거에 개입하도록 지령을 내린 정황이 포착돼 이 부분에 대한 공안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공안당국은 지난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로 민노당 사무부총장 최기영(40)씨와 장씨의 회사 직원 이진강(43)씨를 추가로 구속하고 일심회 조직원들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일심회는 단계별 보고·명령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장씨를 통해 북측으로부터 받은 지령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노당이라도 열린우리당에 표를 몰아줘 한나라당 당선을 막는 방안' 등이었다고 공안당국은 설명했다.

공안당국은 이들이 차례로 '동욱화원'으로 불리는 중국 베이징의 비밀 아지트에서 교육을 받고 지령을 수령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마지막으로 정든 검찰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광주고(19회), 전남대 법학과(70학번), 전남대학원(법학석사)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23회), 사법연수원(제13기)을 수료한 후 서울지검 등지에서 검사, 부장검사, 지청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특히 제가 고향인 광주에서 검사 및 보호관찰소장(1992~1994), 형사1부장(2002~2003)으로 근무하는 동안 베풀어 주신 후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터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반 소송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오니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6년 10월 30일

변호사 이 정 회 올림

■ 업무개시 : 2006. 10. 24.(화요일)
■ 개업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7-4 대영빌딩 3층
■ 대표전화 : (02)535-9009
■ 개업소연 : 2006. 11. 9(목) 17:00부터

"한나라당 '김용갑 망발' 해명하라"

광주·전남 시민단체 성명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 등 광주·전남의 99개 시민단체는 29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김 의원의 발언은 민주화와 통일의 도시 광주에 대한 모독이자, 목숨을 다해 군부독재에 항거한 광주시민을 모욕하는 정치적인 강도 행위"이라고 규탄했다.

시민단체들은 ▲김 의원의 즉각적인 국회의원직 사퇴 ▲광주시민들에 대한 김 의원의 공개사과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해명 등을 아울러 촉구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의 '해방구' 망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핵은 반생명"
김지하 인터뷰 ▶15면